

TF팀 신속 가동하는 청양군, 피해 복구 속도전

‘신속 복구·행정 단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청양군이 집중호우 피해 앞에서 군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군 전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청양군은 곧바로 재해복구 전담 TF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복구 체계에 돌입했다. 올해 호우로 인한 피해는 적지 않았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합친 피해 건수는 2,286건에 달하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약 385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청양군을 특

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청양군은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신속한 재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청양군이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여름에도 집중호우로 42세대 87명이 긴급 대피했고 6천여 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복구비는 661억 원에 달했으며 군은 온전한 정비 사업을 통해 피해 시설을 100% 복구했다. 2023년에는 더 큰 피해가 찾아왔다. 정산면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고 280세대 424명이 이재민으로 발생했다.

피해 건수는 9,200여 건, 피해액은 379억 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지천 정비 사업 등에 789억 원을 투입해 현재까지 80%의 복구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2022년, 2023년, 2025년 연속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군은 매년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복구를 이뤄내며 위기 대응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번에도 청양군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33명의 TF팀은 안전총괄과, 건설정책과, 산림자원과, 도시건축과, 농정축산실 등 전 부서가 참여하는 범군 차원의 조직으로 출범했다.

TF팀은 피해 시설 169건을 대상으로 복구 계획을 세우고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와 사전심의, 사업 발주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어 2026년 장마철 이전인 6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행정 절차 간소화도 중요한 과제다. 군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계약과 입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관급자재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선금 지급을 활성화해 예산 집행을 앞당기고 매주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책을 마련하는 체계를 가동 중이다. 군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고 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농기계 피해 보조와 임시 주거시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청양군은 과거 복구 경험에서 시설 복구만큼이나 생활 안정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고 이번에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 지난 7월 김돈곤 군수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거창 홍로사와 초매식 개최…본격 출하

거창서 ‘2025년산 거창 홍로사와 초매식’ 성황리 개최

경상남도는 22일 거창군 사과원에농협 청과물종합처리장에서 ‘2025년산 거창 홍로사와 초매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하를 알렸다.

이번 초매식은 올해 첫 거창 홍로사와 출하를 대내외에 알리고, 사과 농가의 풍년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해 도·군의회 의원, 경남농협 본부, 사과원에농협, 유통업체, 사과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거창사와 풍년 기원제, △유공자 표창, △(재)거창군 장학회 장학금 기부식, △기념사 및 축사, △초매선포 퍼포먼스, △사과 경매 시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이날 초매식에 참석한 박완수 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과 정성으로 훌륭한 사과를 재배해주신 농업인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거창사

과는 대한민국 과일 중 최고의 명품 과일로 인정받고 있으며, 거창의 기후와 정성으로 길러낸 특별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에서도 시설 현대화, 스마트 특화단지 조성, 산지 유통시설 지원 등 유통 기반 확충에 힘쓰고, 자연 재해에 대비한 계약보장제 등 농업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사과는 지역 농업인의 노력과 품질로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인 유통과 판로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초매선포식에서는 도지사와 지역 주요 인사 12명이 메인무대에 올라 버튼 점화 퍼포먼스를 통해 2025년산 거창사과의 본격 출하를 알렸고, 사과 경매 시연은 사과원에농협 경매장에서 도지사, 군수, 사과원에농협 조합장이 직접 중도매인 역할을 맡아 실제 경매 방식으로 진행돼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더했다.

한편, 홍로사과는 거창을 대표하는 중생종 품종으로,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거창군 일대 약 626ha에서 1만 5천 톤가량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초매식을 시작으로 전국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본격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영란 기자

yunglan528@hanmail.net



▲ 사과(픽사베이)

곡성군, 식량산업 종합계획 2차 실무협의회 개최

전략작물 산업화·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논의

곡성군은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식량산업종합계획(5개년) 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향후 5년간 곡성 식량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무원·지역농협 관계자, 농업인 단체대표, 식량작물 들녘경영체 등 20여 명이 참석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

까지 추진할 곡성군 식량산업발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식량산업종합계획’은 지자체의 식량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생산·유통 체계, 시설투자 및 연계산업 등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종합적인 지원책과 사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이다.

특히 이번 2차 협의회에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와 최근의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식량 생산과 유통 체계 확립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전략작물 산업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RPC(미곡종합처리장) 역할 등을 비롯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인프라 확충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 소농·고령농 웃는다

아침 6시까지 주문하면 저녁 식탁은 익산 농산물로

농민은 땅을 일구고, 행정이 판로를 여는 익산형 유통망이 고령농·소농·영세농을 든든하게 돕는 ‘장사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익산시는 ‘익산형 마을전자상거래’가 올해 8월 기준 누적 매출 27억 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을전자상거래’는 농민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을 익산시가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해 판매하는 사업이다. 자체 운영하는 익산물은 물론 네이버, 옥션, 11번가, 우체국쇼핑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익산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익산 시내권 소비자라면 아침 6시까지 주문한 건에 대해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

아침에 주문한 채소가 저녁 식탁에 오르는, 말 그대로 ‘산지 직송’을 실현한 것이다. 신선도는 물론 편리함까지 갖춘 서비스다.

익산시는 수거 동선을 최적화한 물류 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농가는 물류 부담 없이 생산에만 집

중할 수 있게 했다.

농민은 농사에, 시는 판매와 홍보에 나서며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라는 슬로건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시는 안정적인 판매량에 힘입어 남은 하반기에도 판촉 강화,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품목 확대 등을 통해 더욱 공격적으로 농촌 경제를 견인할 계획이다.

신뢰도 높은 유통을 위해 소비

자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잔류농약 검사, 품질관리 등도 병행된다. 여기에는 단순히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러한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인정 받고있다.

시는 ‘2025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 모델을 앞세운 전국적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익산시제공

논산시, 스마트팜 복합단지 본격 시동

청년농 유입 기반 마련

논산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논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논산시 관계자와 전문가, 농업인 등 20여 명

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개요와 추진 일정, 설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보완 사항과 의견을 교환했다.

논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자립을 위한 분양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마구평리 일원에 약 14.1ha(구 4만여 평)

규모로 추진된다. 시는 2025년까지 설계 및 입주 농업인 선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 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 농업 기술 기반의 첨단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농업인의 지역 유입을 유도해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혁신 거점도시 논산’을 만들 계획이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우리의 발걸음

축산환경의 밑거름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축산환경관리원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친환경
안심축산업 실현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축산환경 전문가
인력 양성·교육

데이터 기반
축산환경 개선